

圖書人の 교양

박이문

포항공대 교수·철학

지난 몇년 사이 한국의 출판계는 정말 왕성하다. 적어도 양적으로는 정신없을 만큼의 새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작년에 있었던 '책의 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앞으로 더 많고 더 좋은 책을 내고 그러한 책들이 더 많이 읽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리라. 책의 양적 증가는 그에 비례한 독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적·문화적 수준이 높아가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출판의 양적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 축하해야 할 현상이다.

그러나 오늘의 도서·출판계가 그냥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책의 제목붙이기에 나타난 경향이나 책의 광고 양식이나 베스트셀러에 대한 관심이나 서평의 몇가지 양상, 그리고 출판되는 책의 종류 등을 볼 때 저자들이나 출판계나 독서층의 높지 않은 질적 양상을 암시한다. 책의 제목들이 간지럽다 할 만큼 이상하게 붙여진다는 인상이다. 책 광고는 차분한 지성을 설득하기에 앞서 얕은 시류적 감각의 자극을 선동한다는 느낌을 준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지나친 언급은 책의 가치가 상품적 시각에서만 측정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론계에서의 서평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책의 종류를 볼 때 이론적이거나 학술적 저서에 비추어 볼 때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문화가 지적이기보다는 너무나 정서적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또한 한국학이나 지역적 학문을 제외로 하고 볼 때 순수한 학문이나 이론적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의 출판물이 한국인 자신들의 자생적이며 독자적 산물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저서를 번역한 것들이라는 데 있다. 더 괴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학계 및 언론계의 관심과 논란이 주로 외국에서 작은 통로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선택되어 들어오는 시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도서 출판계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학문적·지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아직 주체성이 탄탄치 않다는 말이다.

도서출판계는 물론 문화계 일반에서도 위와같은 사실을 의식하고 그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모두가 다같이 반성하면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한 저자나 한들의 출판사나 한 부류의 독자들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다. 관련된 모든 분야의 모든 이들이 다같이 협력한다 해도 성격상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은 하루 이틀이나 일 이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圖書인들이 조금만 주의와 노력을 한다면 당장 개선해 독서계의 수준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점이 있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철학 전후」라는 얼마전 출판된 책을 사러 간 적이 있다. 두 책이 학문별로 따지면 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은 누구든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같이 '철학'이라는 말이 책 제목에 붙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제목을 신용할 수 없다 해도 그 책의 첫 장을 잠깐 열어 몇 줄만 읽어보기만 한다면 그 책들이 다같이 '철학'에 속한다는 것을 조금의 교양있는 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이라 표시가 붙은 진열장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그런 제목의 책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알고 보니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과학'의 진열장에 그리고 「철학 전후」라는 책은 '교양' 진열장에 꽂혀 있었다. 전자의 책은 '과학'이란 말이 붙었으니 '과학'으로 분류됐고, 후자의 책은 그 제목이 낯서니까 그냥 '교양'으로 분류하며 수필이나 설교류의 책으로 봤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점 경영자나 그 밑에서 일하는 서점원들의 도서에 대한 기본적 교양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암시해 준다. '책의 해'를 지내고 난 뒤에도 아직 이렇다는 것이 아쉬웠다. 구멍가게에서라면 몰라도 전문화를 자칭하는 대형서점에서 그랬다는 게 더 놀라움이 있다. 도서계의 최소한의 교양이 아직도 시급하다.

표지인물	2	이 땅과 역사의 숨결 찾는 순례기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둘째권 낸 유홍준교수
리뷰	4	지구촌 책잔치 무엇이 어디서 열리나 — 양도열
초점	6	컴퓨터도서 출판 문제점 한둘 아니다 — 구승희
서평	8	시노다 볼린 「도와 인간심리」 — 김재영 홍숙기 「일과 사랑의 심리학」 — 이훈구 9 래리 라우트 「과학과 가치」 — 신중섭 폰 헤르만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 박찬국 10 백영서 「중국현대대학문화연구」 — 전동현 김민수 「모던디자인비평」 — 서병기 11 김윤식 「설렘과 황홀의 순간」 — 하응백
학대서평	12	조동걸 외 지음 「한국의 역사기와 역사학」 — 조 광
학제의 책	13	강운구 사진집 「우연 또는 필연」
출판화제	14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 지형도 — 최태원
자료집	15	일진기획 펴냄 「한국대학연감」 94년판
연재기획	16	책의 위기와 글쓰기의 진실 — 김상환
이 책 그 사람	18	「색깔있는 이야기」 펴낸 박영수씨 「21세기형 슈퍼셀러리맨」 낸 윤은기씨 19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펴낸 차창룡씨 「하늘에 닿은 손길」 낸 조정권씨
세미나	20	출판시장 개방과 출판정책 방향 출판학회 주최 제8회 출판학술세미나 지상중계
쟁점	22	출판인 구속사태, 과연 무슨 일 때문인가
세계의 책	24	중세시대 중국의 해양 원정 전통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학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7 출판계 뉴스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홍진		

오직 기자만을 양성합니다①

지난 6월의 작은 기쁨

지난 6월말에는 몇가지 기분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임현아 학생이 일간스포츠 출판국에, 김정은 학생이 조선일보 출판국에서 일하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취업희망자에 비해 취업처의 의뢰가 폭주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매년 여름행사인 (여름언론인수련회) 참석신청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정규교육 외에도 선후배기자들의 모임을 통해 좋은인맥만들기를 꾸준히 해온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의 기쁨은 이렇듯 계속됩니다.

예비기자 모집/대재 및 졸업자(전공무관), 현재 접수중
입학상담 / (02) 747-1991 취업보도실 / (02) 747-1993

대학로 파리크라상위 30m (4호선 혜화역)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